

이 시장 “공공기관 유치 경쟁 우려 시·도 통합 논의 제안”

광주 국회의원·광주시 정책간담회 비공개 회의 무슨 얘기 나왔나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전남도를 향해 '시·도 통합 논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전남도에서 (혁신도시 시즌2 이전희망) 공공기관 42곳을 (먼저) 발표해 시·도 상생을 위해 시·도통합 논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이 시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없어 광주군공항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주지역 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운영덕·이병훈·송갑석·양향자·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시·도통합 제안 배경과 진행 과정을 묻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당시(지난 9월 10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광주 대응 전략 마련을 위

“전남도서 42개 기관 불쑥 발표”

국방위 위원 없어 이전 어려움

군공항 특별법 통과 당부

광주 자체 SRF 처리 방안 제안

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전남도가 유치 공공기관 42곳을 먼저 발표했다"면서 "이에 광주시는 유치 공공기관 38곳의 발표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혁신도시 시즌1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통해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조성했던 사례를 상기시킨 뒤 "이렇게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시·도가 경쟁하는 것은 좋지 않고, 평소 이야기했던 시도상생·시도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 중 광주군공항이전 해당 상임위원 국방위 소속 위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이용빈(광산)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국토부의 혁신도시

관련 공문 광주 패싱' (광주일보 10월 28일자 3면)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국토부에서 시도를 경유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지원해주는 45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안 요청 공문을 국토부 담당자의 실수로 받지 못했고, 뒤늦게 이 예산의 절반인 22억5000만원씩을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지원받기로 했다"면서 "국토부에서 '광주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오섭(북구)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했기에,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배정된 총 450억원 중 광주·전남의 몫이 합쳐서 45억원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 45억원, 전남도 45억원이 맞는 것"이라면서 "향후 광주시는 이 예산에 대한 증액요청을 하고, 이를 지역 국회의원들이 돕겠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일부 쓰레기로 만든 고행폐기물 연료(SRF)를 애초 협약과는 달리 나주열병합 발전소에서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SRF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병훈(동남) 의원은 "광주시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는데 협약이 지켜지지 않아 광주의 어려움이 크다. 광주 자체적으로 SRF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자"면서 "혁신도시 시즌2도 시도 상생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양향자(서구) 의원은 "컨벤션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광주에는 특급호텔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광주도시공사가 도심

에 골프연습장만 만들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2.8% 이낙연 21.6% 윤석열 15.1%

윤, 국감 이후 지지도 급상승...야권 취약 광주·전남북서도 14%

알앤씨치 여론조사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가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집계됐

다. 이는 지난 8월 조사(9월은 조사 결과 없음)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적합도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22.8%)였고,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1.6%)였다.

윤 총장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6.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8%),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3.1%), 유승민 전 의원(3.0%), 황교안 전 대표(2.5%) 등 야권 잠

룡들의 선호도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특히 야권이 취약한 광주·전남북에서도 14%의 지지도를 얻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테일리안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호남 구애 견제? ...민주당 내일 광주서 최고위원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지역 현안을 챙긴다.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잇따르면서 텃밭 사수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예결위원장 등은 30일 광주시당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해 지

역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회의를 마치고 지역 그린뉴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부지(빛그린 산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광주·전남, 11일 충청·강원, 18일 수도권, 25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텃밭인 광주·전남부터 방문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이를 두고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 행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내년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호남의 표를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적극적인 호남 공략에 나서자 민주당이 텃밭을 지키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택배기사 근로환경 하루빨리 바뀌기를...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3) 오늘도 무사히

올해 들어 택배기사 13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충격을 주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뛰어다녀야 할 택배업무의 극한적인 상황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마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가끔 딸아이가 밤늦은 시간에 인터넷 주문을 통해 이튿날 새벽에 배송 받는 것을 보고 "이런 배달의 신세계가 있다니!"하고 감탄했던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 같다. 읽고 싶은 책을 살 수 있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곤 했는데 당분간은 독서도 잠아야겠다.

새벽배송, 총알배송, 로켓배송이 가

저은 소비자들의 편리함 이면에 인간다운 삶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택배기사들의 살인적인 근로환경이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영국의 왕립미술사카데미의 창립자로서 18세기 영국미술계를 이끈 조슈아 레이놀즈(1723-1792)의 '기도하는 사무엘'(1776년 작)은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한 점의 그림인 것 같다. 이 그림은 어린 시절 우리 집 안방에 A4 용지 크기의 하얀색 테두리 액자에 사진으로 담겨 걸려 있었는데 이모집에서도 친구집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이미지였다. 천사처럼 예쁜 소녀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송고한 모습에 절로 경건해졌던 어린 날의 모습이 떠오른다.

얼마 전까지는 택시앞좌석 백미러에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가 적힌 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얼마나 매일이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으면 안전을 기원하는 부처처럼 우리 곁에



조슈아 레이놀즈 작 '기도하는 사무엘'

두었을까. 이 이미지와 함께 있는 동안엔 정말로 아무 일 없이 무사한 날들이 지속되었을 것 같다.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 줄은 미술 입문후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림 속 인물은 예쁜 소녀가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로서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 모습이다. 저 멀리 구름을 뚫고 거룩한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무엘이 경청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우리의 손으로 만든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지방자치에 그 답이 있습니다.